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6

디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디 도 서

Titus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2:7, 8)

*περὶ πάντα σεαυτὸν παρεχόμενος τύπον καλῶν ἔργων,
ἐν τῇ διδασκαλίᾳ ἀφθορίαν, σεμνότητα, λόγον ὑγιῆ
ἀκατάγνωστον, ἵνα ὁ ἐξ ἐναντίας ἐντραπῆ μηδὲν ἔχων
λέγειν περὶ ἡμῶν φαῦλον.*

디도서 차례

디도서 서론	〈14제〉	… 651
제 1 장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	〈21제〉	… 656
제 2 장 신자들을 가르칠 바른 교훈	〈20제〉	… 662
제 3 장 불신 사회에서의 신자의 태도	〈23제〉	… 668

디도서 특별 자료 차례

디도서 서론 〈연구 자료〉 금욕주의(禁慾主義)	654
제 1 장 〈본장의 요절〉	661
제 3 장 〈본장의 요절〉	674

디도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저자는 1:1-4로 보아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하지만 바우어(F. C. Baur, 1792-1860), 홀츠만(Holtzmann, 1810-1870) 같은 일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주장을 하면서 본서신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3) 먼저 그들은 본서신에 나타난 교직(敎職)이 A. D. 2세기의 제도이므로 A. D. 1세기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도 감독과 집사 같은 교직 제도가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행 14:23; 20:17; 빌 1:1)이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든다.
 (4) 또 디모데전·후서와 본서에 나타난 바울의 여행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1:5; 딤후 1:3; 딤후 1:8; 2:9의 기록이 없다)는 주장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의 선교에 관한 언급이 없을 수 있다.
 (5) 이러한 차이점에 관한 증거로는 드로아(딤후 4:13), 달마디아(딤후 4:10), 밀레도(딤후 4:20) 같은 지명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6) 무엇보다도 바울이 본서신의 저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 그를 저자로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1:1-4).

2. ㉡ 본서신의 저자인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 ㉡ (1) 사도 바울은 베나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빌 3:5) 소아시아 반도의 동남편에 있는 길리가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하였다(행 9:11; 21:39).
 (2) 바울은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받았으며(행 22:3) 유대교에 열심을 내어 예수를 메시야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행 7:58).
 (3)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은 후에 기독교로 개종(改宗)하였다(행 22, 26장).
 (4) 그 후에 바울은 1차(행 13, 14장), 2차(행 15:36-18:23), 3차(행 18:23-21:16)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등과 같은 여러 믿음의 서신(書信)들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의 확장과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5) 더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행 22:28)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점령지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었으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6) 이같이 핍박자가 변하여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깨닫게 해준다.

3. ㉢ 본서신의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신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2) 행 28:30, 31에 나타난 기록이 바울의 신변에 관한 최후의 기록이 아니므로 바울은 1차 체포되었다가(참조, 롬 15:23, 25, 28) 2, 3년 뒤에 석방되어 다시 선교하다가 재차 투옥되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의 중간 선교 지역과 그 기간에 본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3) 또 본서신의 문체와 내용이 디모데후서보다는 디모데전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디모데후서보다 (A. D. 66) 앞서고, 디모데전서보다는 (A. D. 64) 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므로 본서신은 A. D. 66년초경에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장소인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A) (1) 본서신은 교회가 수신자로 된 사도 바울의 여타(餘他) 서신(참조, 롬1:7; 고전1:2; 엡1:1)과는 다르게 수신인이 '디도'라는 한 개인으로 되어 있다(1:4).
- (2)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예루살렘 총회 (A. D. 50)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참석했던 사실을 보면 그 이전부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갈2:1-5).
- (3) 또 디도는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행15:36-18:23) 이후 그와 계속 동행하였으며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도 하고(고후7:6;8:6) 그레데 교회를 돌보기도 하였다(1:5).
- (4) 이같이 오랫동안 바울과 동역(同役)한 디도는 바울에게 '참아들'(1:4), '동무', '동역자'(고후8:23)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랑과 신임을 받은 신실한 주의 종이였다.
- (5) 이처럼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딤후1:9; 히3:1)을 입은 성도들과 교역자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충성하여(엡4:1; 뱀후1:10)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롬14:18; 고후10:18).

5. **㉠**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A) (1)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그레데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기에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한 상태였다(1:10-13;2:1-10).
- (2) 이렇게 혼란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올바른 권면과 격려가 필요하였다.
- (3)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 거저 교사들에게 취할 자세, 남녀 노소에게 적용될 신앙 윤리, 복음의 내용, 신자의 국가관, 이단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는 본서신을 보내게 된 것이다.
- (4) 이같이 신앙인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여러 규범을 제시한 본서신은 물질과 권위를 말씀보다 중히 여기고, 잘못된 장로와 교역자가 많으며, 각종 이단들로 어지러운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6. **㉠**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 (A) (1) 첫째, 디도를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빨리 오게 하기 위하여 본서신을 기록하였다.
- (2) 둘째, 율법 학자인 세나(Zena)와 아블로를 먼저 보내어 그레데 교회에 영적인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 (3) 셋째,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본서신을 기록하였다.

7. **㉠** 본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 (A) (1) 본서신의 특징은 디모데전서와 비교해 볼 때 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1:6-8)이나 교회 내의 여러 그룹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2:1-10) 등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 (2)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자주 언급되는 '십자가'나 '십자가에 못박는다'는 말이란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비교, 고전1:18; 고후13:4; 갈6:12; 엡2:16; 빌2:8; 골1:20).
- (3) 그리고 본서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신앙의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면, 즉 선한 생활을 여러 번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1:6;2:7, 14;3:1, 8, 14).
- (4) 보다 중요한 특징은 본서신에 기독교 신앙의 골격이 되는 중대한 교리(敎理)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 (5) 예를 들면 선택(1:1), 영생(1:2;3:7),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1:3, 4;2:13), 하나님의 은

혜(2:11), 구원의 보편성(普遍性, 2:11), 그리스도의 재림(2:13), 대속(代贖, 2:14), 중생(重生, 3:5), 성령의 사역(事役, 3:5), 칭의(稱義, 3:7), 상속권(3:7) 등이다.

8. **㉠ 그레테 교회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그레테 교회의 설립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2) 다만 추측하기를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레테인들이(행 2:11) 고향에 돌아가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바울은 디도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했기에(참조, 고후2:13;7:6, 7) 그를 그레테에 파견하여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유대교의 잘못된 습성을 바로잡게 하였다(1:5).

9. **㉡ 본서신에 나타난 그레테 교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

- ㉠** (1) 그레테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실천적인 선한 행위가 없었으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 상태에 있었다.
 (2) 특히 '믿는 자녀를 갖는 것'(1:6) 이 장로의 자격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로 보아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 중에 바로 서지 못한 가정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또 교회 내에는 복음대로 순종치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미혹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다(1:10, 11).
 (4)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설교가 그레테인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상을 준 듯하다. 그래서 그레테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그 행함이 관계 없다는 잘못된 신앙관이 만연(蔓延)하였다(1:16).
 (5) 만일 2:1-10까지의 기록이 그들에게 적합한 권면이라면 그들은 남녀 노소 모두가 나태하고 방종(放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6) 이같이 잘못된 교리가 전해지며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레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 준다.
 (7) 그레테 교회가 복음에 입각한 바른 교리에 의하여 권면을 받고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될 필요가 있었듯이 현대 교회들도 복음으로 돌아가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비교, 제1-3장).

10. **㉢ 본서신에 나타난 감독의 자격과 딤편 3장의 감독의 자격을 비교하라.**

㉠ (1)

자 격 의 내 용	디 도 서	디모데전서	자 격 의 내 용	디 도 서	디모데전서
책망할 것이 없음	1:6	3:2	나그네됨 대접함	1:8	3:2
한 아내의 남편	"	"	선을 좋아함	"	
믿는 자녀를 둔 자	"	3:4	근신함	"	3:2
제 고집대로 하지	1:7	3:3	의로움	"	
않음			거룩함	"	
급히 분내지	"	"	절제(節制) 함	"	3:2
않음			말씀을 그대로 지킴	1:9	
술을 즐기지	"	"	가르치기를 잘함	"	3:2
않음					
구타하지	"	"			
않음					
더러운 이(利)를	"	"			
탐하지					
않음					

- (2) 이와 같이 본서신에 기록된 장로의 자격과 딤편 3장의 감독의 자격은 유사한 점이 많다.
 (3) 또한 이러한 자격 조건들은 딤편 3장의 집사가 되는 자격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딤편 3:8-13).
 (4) 따라서 이 같은 조건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들

임을 알 수 있다.

(5)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권사, 집사 등 직분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유하신 모습을 본받기 힘쓰고 더불어 이러한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 본서신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먼저 본서신은 장로의 자격, 교회 내의 여러 계층에 대한 권면의 내용, 복음에 대한 설명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친다.
 (2)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나(15장) 디모테전서(3장)와 유사점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복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바른 목회를 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12. ㉠ 본서신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신의 주제는 '선한 생활' 이다(1:16).
 (2) 이 주제는 비교적 짧은 본서신에서(3장) 계속하여 6번이나 강조되었다(1:16;2:7, 14; 3:1, 8, 14).
 (3) 이같이 여러 번 강조된 '선한 생활'이란 신자(信者)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4) 또한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생활이 필수적으로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한다(2:14; 약2:14, 17).
 (5)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선한 생활을 통하여 그 말씀과 실천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 본서신의 대지(大旨)를 구분하라.

- ㉠ (1) 인사/1:1-4
 (2) 목회 사역에 관한 권면/1:5-2:15
 ① 장로의 자격/1:5-9
 ②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1:10-16
 ③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2:1-10
 ④ 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라/2:11-15
 (3) 신자의 사회 생활에 관한 권면/3:1-11
 ① 국가에 대한 태도/3:1
 ② 범사에 온유하게 대하라/3:2-7
 ③ 헛된 다름을 피하라/3:8-11
 (4)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3:12-15

14. ㉠ 본서신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 ㉠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2:7, 8).

연구자료

금욕주의(禁慾主義)

'금욕주의'(asceticism)란 말은 '훈련', '수련', '근행'(勤行) 등

을 의미하는 헬라이어 <아스케시스>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고행을 통하여 보다 숭고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실천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심지어 기독교에서조차 정상적인 금욕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즉 본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감독의 자격 곧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1:7) 등의 제반 사항은 성도들이면 누구라도 준행하여야 할 금욕적 생활 원리인 것이다. 이런 금욕적 생활 원리는 구약 시대의 나실인(Nazir)들도 준수하던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誓願) 기간 중 또는 일평생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머리를 밀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삿13:4, 5, 7, 14; 삼상1:11). 이와 유사한 모습은 광야에 기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石淸)을 음식으로 삼던 세레 요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마3:1-4).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公生涯)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 나아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금욕적 태도를 보이셨다(마4:1, 2).

그런데 문제는 이상과 같은 정상적인 금욕주의자와는 달리 그릇된 사상에 입각한 비정상적인 금욕주의가 항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대개 영지주의(Gnosticism)의 영향을 받아 물질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 비천한 것이며 영적인 것만이 선하며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와 영적인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자신의 육체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만이 보다 고상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은 독신 생활에 힘쓰며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의 단식이나 절식(節食)을 곧잘 일삼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기꺼이 포기해 버린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금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에 오염되었기는 하지만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혼인을 귀히 여기며(히13:4) 자신의 몸을 해하지 말 것(신14:1)을 명하고 있다. 더군다나 성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바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좇아 몸을 주관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사용해야 한다(고전6:20).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취득한 물질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는다(참조, 딤후2:6). 그러므로 우리는 비정상적인 금욕주의 사상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제 1 장 장로의 자격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

단락구분 1-3 바울이 사도가 된 유래 / 4 인사 / 5-9 장로의 자격 / 10-16 거짓 교사들을 꾸짖으라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 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 어디다

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0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11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은퐁 엮으려치는도다

12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16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바울이 디도에 게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울 것과 그 자격에 대해 또 허탄한 이야기를 하여 신자들을 실족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행동을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본장에 나타난 장로는 그 가정이 모범적이어야 하며(6절), 성품이 온유하고 선을 행하며(7, 8절),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9절)이어야 한다.
- (3) 또 그레데 교회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들이(16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 (4) 본장은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디도에 게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다.
- (5) 이와 같은 그레데 교회의 모습은 현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므로 성도들은 본장을 통

하여 장로의 자격이나 거짓 교사들의 모습 등에 관하여 올바른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2. **㉠** 본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자신을 어떠한 자라고 소개하였는가? (1절)

㉠ (1)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혔다.

(2)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모든 생명과 활동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의미이다.

(3) 또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헬, 아포스톨로스)라고 했는데 사도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고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므로 보낸 자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4)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그의 증인이 될 사명을 지닌 자이다(고전 1:1; 딤후 1:1).

(5) 이렇게 두 직분을 같이 사용한 것은 자신의 직책과 본서신의 권위에 대한 선언이다.

(6) 오늘날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행 1:8)도 전생애(全生涯)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3. **㉠**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인가? (2절)

㉠ (1) 이는 타락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사실을 말한다(롬 6:22).

(2) 그래서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요 3:16; 행 16:31).

(3) 그러나 이 구원의 약속은 결코 인간의 행위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딤후 1:9).

(4) 이같이 은혜스런 구원의 약속을 생각할 때 당연히 성도들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며 기쁨을 갖게 된다(참조, 롬 8:29, 30).

4. **㉠**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하여 언제 약속하셨는가? (2절)

㉠ (1)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을 창세 전(엡 1:4, 11), 즉 영원 전에 하셨다고 한다(롬 16:26; 딤후 1:9).

(2)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이행(履行)에 대하여 후회하시지도, 식언(食言)치도 않으신다고 했다(민 23:19).

(3)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굳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환난 가운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5. **㉠** ‘자기 때’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3절)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도록 작정하신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2)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 성쇠(興亡盛衰)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 화복(生死禍福)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 시기가 정해지게 된다(전 3:11; 마 10:29).

(3)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의 사역(事役)을 하게 하신 것도 당신이 작정하신 때가 왔기 때문이었다(갈 4:4; 엡 1:9; 히 9:26).

(4) 그리고 이 ‘때’는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엡 1:10).

(5)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전 3:11).

(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알맞은 때를 기다리며 또 그 시기가 가까왔을 때에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엡 6:18; 골 4:2).

6. **㉠**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불렀는가? (4절)

㉠ (1) 바울은 디도를 ‘참아들’이라고 불렀다.

(2) 또 바울은 그를 가리켜 ‘형제’ (고후 2:13), ‘동무’, ‘동역자’ (고후 8:23)라고 칭하기도 했다.

(3) 그리고 디도는 바울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울

을 열심히 도왔다(고후 7:5, 6; 8:16, 17).

(4)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눌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요 13:35) 당을 짓고 분쟁하며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갈5:20).

7. **㉠ 바울이 동역자 디도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는가? (4절)**

- ㉠** (1)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다.
- (2)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 없이 주시는 사랑을 말한다.
- (3) 바울은 디모데와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딤후 1:2; 몬 1:3).
- (4)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도 편지에서 이 같은 말을 사용하였다(벧전 1:2; 5:14; 벧후 1:2).
- (5) 예수께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70인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을 빌 것을 가르치셨다(눅 10:5, 6).
- (6) 이와 같이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평강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분쟁과 미움은 세상과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8. **㉠ 그레데 교회에 있어서 '부족한 일'이란 무엇인가? (5-16절)**

- ㉠** (1) 본장의 내용으로 보아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2) 첫째, 교회에 아직 장로가 없으므로 완전치 못했다(5절).
- (3) 둘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심하여 교회가 바로잡히지 않았다(10, 11절).
- (4) 셋째,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믿음에 따르는 선한 행위가 없었다(16절).
- (5)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들이 부족된 것이라 보고 이를 시정할 것을 사도적 권위로써 요구하였다.
- (6)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아주 흡사하다.
- (7) 따라서 현대의 교회들도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한 속성이라고 핑계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 '장로의 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라(5-9절).**

- ㉠** (1) 장로의 자격은 크게 가정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2) 이 중에서 가정적인 것이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정이 평온하여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말한다(6절).
- (3) 또 사회적인 것이란 외적으로 누구에게나 책망받을 것 없는 자세를 뜻한다(7, 8절).
- (4) 이와 같은 장로의 상(像)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대인적(對人的)인 면에서도 흠모할 만한 인품을 갖추어 흠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다.
- (5)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권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성도를 섬기며,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도록 힘써야 한다.

10. **㉠ 장로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6절)**

- ㉠** (1) 장로의 가정은 선한 교훈을 가르치는 장로와 그의 한 아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 가운데에 화목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 (2) 한 아내의 남편이란 일부 다처(一夫多妻)가 아니며 측첩(蓄妾)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3) 또 믿음의 자녀란 남들이 보기에 방탕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녀를 뜻한다.
- (4) 이처럼 장로의 가정은 은혜롭고 모범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따스함을 주어야 한다.

- (5) 왜냐하면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므로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 (6) 당연히 오늘날의 교역자들도 가정에서부터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이루고 나아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 장로와 재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7절)**

- ㉠** (1) 장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 (2)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거나 재물을 탐하여 교회나 사회에서 지탄(指彈)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 (3) 이런 금전관(金錢觀)은 장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딤후 3:8)나 일반 성도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또 그러한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전 10:31).

12. **㉠ '거룩하며'란 무슨 뜻인가? (8절)**

- ㉠** (1) 거룩(헬, 호시오스)이란 단어는 '종교적으로 바른',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등의 뜻을 갖는다.
- (2) 장로가 가져야 하는 거룩함이란 종적(縱的)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 (3) 또 횡적(橫的)으로 인간 사이에서 거룩하고 수준 높은 윤리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이 같은 '거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 이래로(레 11:44) 계속 요구되어진 바이다.
- (5)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생활을 영위(營爲)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딤후 4:5).

13. **㉠ '장로'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자인가? (9절)**

- ㉠** (1) 장로는 교회 내에서 바른 교훈으로 신자들을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믿음을 온전케 하는 직분이다.
- (2) 이 직분은 딤후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책무와 비교할 때 많은 유사점을 가지므로 같은 역할을 하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서론 ㉠ 11).
- (3) 이처럼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신자들을 권면하는 직분이므로 잘못하면 권위만을 내세워 '자기 고집'을 주장하거나 '급히 분내는' (7절) 실수를 할 우려가 있다.
- (4) 그러므로 장로들은 항상 스스로 겸손하도록 노력하며(약 4:6; 벧전 5:5), 사랑으로써 권면하고(고전 16:14), 그리스도를 닮아 인자한 모습을 갖도록(미 6:8) 힘써야 한다.

14. **㉠ '바른 교훈'이란 무엇인가? (9절)**

- ㉠** (1)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딤후 1:11)을 뜻한다.
- (2)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딤후 6:3)이다.
- (3)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성경의 영감(靈感, 딤후 3:16),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고전 12:3),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요일 4:1-6), 그리스도의 죽음(고전 15:3), 그리스도의 재림(벧후 3:3-13), 믿는 자의 구원(요 3:16; 행 16:31) 등이다.
- (4) 이처럼 장로들이 권면하고 가르칠 것은 오로지 복음뿐이며 성도들도 이 복음을 기준삼아 생활해야 한다.
- (5) 또한 성경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 복음 외에 잘못된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내용을 왜곡(歪曲)하여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을 '패역한 자'(갈 1:7)요 '뱀방군'(고전 9:12)이라고 지적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Calvin)이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5. ㉠ '할례당'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10절)

- ㉠ (1) 그들은 유대교에서 넘어온 자들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행 15:1; 롬 2:25-29)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다.
 (2)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순종치 않고 외식적(外飾的)이며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구원을 얻으려 하여 그 행위가 선하지 못하였다(11, 14절).
 (3) 이 같은 할례당의 주장은 분명히 틀린 것이었다(롬 2:29).
 (4)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롬 10:9; 갈 5:6).
 (5) 그러므로 신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는 그릇된 교훈과 주장들을 조심해야 한다.

16. ㉠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어떠한가? (11절)

- ㉠ (1)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믿음의 가정들을 혼란케 하였다.
 (2)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단 설파자(갈 1:6-8)요 경건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는 자(롬 16:17, 18),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진리를 거스리는 자(벧후 2:1; 딤후 3:8), 진리에 착념치 않는 자(딤후 6:3-5), 인습을 좇으며(마 15:9), 헛된 토론이나 즐기고(딤후 1:6,7), 속이며(엡 4:14), 정욕에 붙들린 자(벧후 2:12-19)들이었다.

17. ㉠ 대부분 그레데인들은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였는가? (12절)

- ㉠ (1)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장이요 악하고 게으름장이들이었다.
 (2) 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가(Polybius, Livy 등)와 철학자들(Cicero, Plutarch 등)도 그레데인들은 돈만을 좇으며 탐욕스럽고 도덕이 없는 사람들과 평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춘 장로를 세우라고 했다.
 (4) 즉 좋지 않은 평을 받는 그레데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이다.
 (5) 이처럼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악한 사람과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선과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18. ㉠ 교역자들이 거짓된 교사에 대하여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13절)

- ㉠ (1) 바울은 이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했다.
 (2) 이들을 꾸짖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
 (3) 첫째, 그들을 꾸짖어서 믿음을 온전케 하려는 뜻이 있다.
 (4) 둘째, 거짓 교사들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다른 신자들이 더 이상 이들의 잘못된 교훈을 듣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5) 이같이 교역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간 자들을 책망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또한 책망을 듣고 낙심하거나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면해야 한다(참조, 벧전 4:11).

19. ㉠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14절)

- ㉠ (1)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다(행 15:1; 갈 6:12).
 (2) 이 같은 '허탄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끌어 낸 기발한 이야기들로 공교(工巧)히 만든 것들이었다(벧후 1:16).

- (3) 이러한 헛된 주장을 하는 거짓 선생들은 그레데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도 퍼져 있었다(참조, 뱀전 1:1; 뱀후 2:1-3).
- (4) 이처럼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많은 신자와 교회가 생기는 것과 비례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잘못된 교훈들도 나타났다.
- (5) 일찌기 오늘날처럼 복음이 널리 알려졌던 때는 없었지만 현재에도 많은 이단과 잘못된 주장들이 횡행(橫行)하고 있다.
- (6) 이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쓴다(참조, 뱀전 5:8; 계 12:9).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전 15:2; 히 3:6).

20. ㉠ '깨끗한 것' 과 '더러운 것' 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15절).

- ㉠ (1) 이러한 구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기와 규례가 지나치게 많다(참조, 출 19-40장; 레 18-22장; 신 14장)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 (2) 즉 유대인의 많은 규례에 합당하면 깨끗한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더러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 (3)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다(고전 8:7-13; 10:25-31; 딤후 4:4).
- (4) 또 예수께서도 '깨끗한 것' 과 '더러운 것' 의 구분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달린 것이라고 하셨다(막 7:15, 16).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치장과 규례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전 10:31).

21. ㉠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16절)

- ㉠ (1)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선한 행위' 가 없었다.
- (2) 예수께서도 믿음은 없으면서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던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다(막 7:6-9; 눅 20:47).
- (3) 이처럼 이들에게는 없는 '선한 행위' 란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마 5:16; 뱀전 2:12).
- (4) 그러므로 믿음과 선한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믿음은 선한 행위로 인하여 증명되고 선행은 믿음을 더하게 한다(약 2:18; 요일 2:4).
- (5)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장의 요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5절).

제 2 장 신자들을 가르칠 바른 교훈

단락구분 1-10 교회 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 11-14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 15 교역자의 임무

- 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 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 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 4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 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 7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 9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 10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 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 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15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바울이 1장에서 말한 교훈을 교회 내의 여러 계층 사람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 (2) 즉 젊은 남녀들은 늙은 사람들과 교역자인 디도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라고 하였다.
- (3) 그리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복종하여 교회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믿음이 없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은 주인에게 성실하게 순종하여 행동으로써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 (4) 또 허탄한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바른 복음을 가르쳐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도록 책망할 것을 말했다.
- (5) 이와 같이 교회에는 말씀의 올바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약2:17) 실천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기 때문이다(참조, 계3:1-3, 15, 16).

2. ㉠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복음의 바른 교훈대로 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 (2) 즉 윤리적인 면에서 실천하고 생활화(生活化) 할 수 있는 신앙을 뜻한다.
- (3) 또 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배운 후 행동에 나타난 신앙적 모습을 가리키므로 '표현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그 내용은 교리적(敎理的)인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도덕적인 윤리이다.

- (5) 이 같은 것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여러 연령층과 사회의 많은 계층이 뒤섞인 집합체이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통용되는 일반적 윤리가 확립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 (6) 나아가서는 교회가 일반 사회에서도 존경과 신뢰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다.

3. **㉠**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7절)

- ㉠** (1) 불신자에게 본보기가 되는 기독교인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가족들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 (2) 즉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권위만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엡6:4;골3:21).
- (3) 그리고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 (4)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장수가 약속된 축복(엡6:2,3)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골3:20).
- (5)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듯 아껴야 한다(엡5:25;골3:19).
- (6) 역시 아내도 남편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한다(엡5:22;골3:18).
- (7)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 평화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4. **㉠** 교회에서 늙은 남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2절)

- ㉠** (1) 교회 내에서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경건하며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한 모습이어야 한다.
- (2) '절제하다'(헬, 네포)라는 뜻은 '술취하지 않은', '경계하고 있는', '신중한', '용의 주도한' 등의 뜻이 있으므로 늙은 남자들이 나이와 경험이 많은 사람답게 신중하고 탐심을 스스로 자제한다는 의미이다.
- (3) 또 늙은 남자들은 고상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경건해야 한다.
- (4) 그리고 나이 많음과 경험을 내세워 권위만을 주장하거나 남의 의견과 인격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겸손한 모습이어야 한다.
- (5)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젊은 신앙인들이 육체가 늙고 나이는 많아도 영생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참된 의미를 가진 인생을 본받게 해야 한다.

5. **㉠** 교회 내에서 늙은 여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 (3절)

- ㉠** (1) 늙은 여자들은 남을 헐뜯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경건한 몸가짐으로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 (2)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과 겸손이 없어지기 쉽고 태도가 흐트러져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기 쉬워진다.
- (3) 그래서 나이가 든 여자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시34:13; 잠13:3; 21:23; 벰전3:10).
- (4) 또 술취하는 것은 세상의 방탕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다(참조, 눅21:34; 롬13:13; 엡5:18; 벰전4:3).
- (5) 그러므로 늙은 여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시119:59; 빌4:8)과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고전2:16; 빌2:5)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6. **㉠** '참소(讒訴)치 말며'란 무슨 뜻인가? (3절)

- ㉠** (1) '참소'(헬, 디아블로스)란 '악마', '마귀'라는 뜻이며 그 동사형 '참소하다'는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의 의미로서 거짓으로 모략을 꾸며 남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 (2) 즉 이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헐뜯고 비방하듯이(계 12:10) 마귀에게 속한 일 중의 하나이다.
- (3)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과 부도덕에 빠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한다(참조, 창3:1;대상21:1;요13:2).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항상 탐심과 교만을 자제하기를 힘쓰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義)의 병기로 드러(롬6:13)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무장해야(엡6:10-17) 한다.

7. **㉠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의 태도는 누가 가르치라고 했는가? (4절)**

- ㉠** (1) 늙은 여자들이 선한 교훈과 바른 행동의 본보기를 통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했다.
- (2)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될 수 있으므로 이런 위치에 있는 늙은 여자들이 딸이나 며느리 같은 젊은 여자들을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바른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 (3) 마찬가지로 이 같은 방법은 젊은 남자와 늙은 남자의 관계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 (4) 이렇게 하면 늙은 사람들은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됨으로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다.
- (5) 이같이 교역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목회(牧會)를 하여야 한다.

8. **㉠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4, 5절)**

- ㉠** (1)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 (2)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어졌으므로(고전11:9)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복종해야 한다(엡5:22, 23).
- (3)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제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엡5:28;골3:18).
- (4) 이같이 서로 아끼고 섬겨야 할 부부는 복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 기도에 힘쓰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도록 협조하는(고전11:11) 관계이다.

9. **㉠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이란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인간적인 욕심을 품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교훈할 때에 대접을 받으려 하는 욕심이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욕(私慾)을 품지 말라는 뜻이다.
- (3) 그리고 교훈 속에 남을 해롭게 할 독소를 섞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는 의미이다.
- (4) 이는 교훈을 듣는 자가 잘못된 교훈을 듣고 복음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키거나 반발심이 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 (5)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역자들은 복음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전달 방법과 평상시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부패치 아니한 교훈이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참조, 골2:23). 왜냐하면 교역자가 전하는 그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 **㉠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는가? (7, 8절)**

- ㉠** (1) 디도 스스로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의 본보기를 보여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라고 했다.
- (2)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으며(행20:

35; 고전 4:6-16) 이러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였다(고전 11:1; 빌 3:17; 4:9).

- (3) 이같이 교역자들은 사람 앞에서는 가르치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이므로 자신의 행동도 말씀에 맞게 가다듬어야 한다(참조, 엡 4:11-16).
- (4)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가 말씀의 실천에 힘써서 바른 교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엡 2:20-22; 4:11, 12).

11. ㉠ 대적하는 자란 누구를 일컫는가? (8절)

- ㉠ (1) 본절에 나타난 대적하는 자란 1:10-16에 설명된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
- (2) 이처럼 그레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듯이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려 했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다(참조, 출 15:9; 수 24:9; 삼상 14:47; 대하 13:8; 에 9:24).
- (3)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애쓰는 영적인 대적자 사단의 것이다(참조, 대상 21:1; 고후 11:14; 살후 2:4; 계 12:9).
- (4) 이같이 이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알곡(마 13:38, 39)이 섞여 있으므로 성도들은 복음과 잘못된 교훈을 잘 분별하고(빌 1:10)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본받기에 힘쓰며(엡 5:1) 선으로 악을 이기는(롬 12:21) 신앙의 승리를 얻도록 힘써야 한다.

12. ㉠ 종이 상전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9, 10절)

- ㉠ (1) 종은 상전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않으며 주인의 소유를 떼어먹지 말고 선하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 (2) 즉 종은 주인을 섬길 때에 주께 하듯 하여(골 3:22)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어 상전에게 대항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며 성실하게 섬겨 상전을 기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 (3) 마찬가지로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므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된다.
- (4) 그러므로 교역자들도 성실한 자세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행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잠 25:13; 갈 1:10).

13. ㉠ 복음의 요지를 설명하라 (11-14절).

- ㉠ (1)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창 1장).
- (2)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였으며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선포되었다(창 2:17; 3:3).
- (3) 이 죽음이란 육적(肉의)으로는 육신의 숨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 5장; 6:3).
- (4)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죄없는 대속자(代贖者)가 필요하게 되었다.
- (5)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죄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참조, 눅 1:35; 히 4:15; 10:1-10).
- (6)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고후 5:19-21)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하여(롬 3:24)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시었다(마 20:28; 고후 5:18-21).
- (7)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마 27:53) 승천하셨다(참조, 요 14:2; 행 1:9-11).
- (8) 이제 인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요 3:16; 행 16:31).
- (9) 이 같은 구속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성도들은/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며 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롬5:8-11).

14. **㉠**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11절)

- ㉠** (1)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졌다.
- (2) 구원의 필수적 조건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가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고후5:19; 요일2:2).
- (3)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로써 오는 구원은 그 사실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요1:12;3:16; 롬10:9, 10; 요일4:2).
- (4)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롬8:29,30; 엡1:5-14).
- (5)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딤후2:4)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인간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벧후3:9).
- (6) 그러므로 이처럼 값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더욱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딤후4:2).

15. **㉠**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11절)

- ㉠** (1)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나 의(義)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말한다(롬3:24;4:1-11;11:6).
- (2) 이 은혜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데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자비하신 그 뜻이 인격화(人格化)하여 나타난 것이 곧 복음이다(엡1:7; 딤후1:10).
- (3)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신다(참조, 빌4:19; 딤후1:14).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여(고후9:8)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이 믿음과 체험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16. **㉠**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12절)

- ㉠** (1)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속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 (2)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모습과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다.
- (3) 먼저 버려야 하는 세상의 모습은 쾌락이나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과 부도덕한 마음, 우상 숭배 등이다.
- (4) 그리고 갖추어야 하는 태도는 절제와 의로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함께 영생의 소망(1:2; 요5:24; 골1:5)을 가진 신앙 등이다.
- (5)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켜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17. **㉠** 하나님이 성도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2절)

- ㉠** (1)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바르게 살아가도록 훈련(RSV, Training) 시키시고 가르치신다(NIV, KJV, Teach)는 의미이다.
- (2) 이 훈련은 성도의 믿음과 행위가 계속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계속된다(엡4:13, 15).
- (3) 이 같은 훈련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때로는 어려움과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시42:5; 고후4:8; 엡3:13; 살후3:13).
- (4) 하나님께서 같이하신다는 뜻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요16:13) 연약함을 도우시고(롬8:26) 훈계하신다는(히12:10) 의미이다.

(5)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기에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으로 사는 훈련에 충실하여 후에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과 상(賞)을 준비해야 한다(참조, 마 5:12; 고전 3:8; 딤후 4:8; 약 1:12; 벧전 5:4).

18. ㉠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 (2) 복스러운 소망이란 영생에 대한 확신(행 24:15)과 소망(골 1:5)을 말한다.
- (3) 또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마 26:64; 행 1:11; 히 9:28)하실 그리스도이다.
- (4)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이전에 마굿간에 태어나셨던 모습과는 달리 왕위(王位)에 앉으시고(딤후 6:15) 재판장의 모습(딤후 4:1, 8)으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계 20:3, 7)은 세상을 평화와 공의로 다스려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기쁘게 하실 것이다(사 11:3-5; 25:6-8; 65:20-25).
- (5) 이 같은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산 소망이다(벧전 1:3).
- (6) 왜냐하면 이 약속의 실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이다(히 6:17-19).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귀한 약속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고(엡 3:12; 히 3:6) 의롭게(롬 5:21; 6:13; 요일 3:7) 살아야 한다.

19. ㉠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들을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기울이는 그의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 (2) 죽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대신하여 죄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죄로부터 깨끗케 하셨다(롬 6:10; 15:8-12; 고전 15:22).
- (3) 그리고 그 결과로 구속(救贖) 받은 자들은 이전과 달리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며(롬 3:24) 하나님의 아들이라는(갈 4:4, 5) 지위를 갖게 되었다.
- (4) 이같이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그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특별한 백성(고후 5:15)이 되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의(참조, 신 32:4; 사 30:18)와 사랑(요일 4장)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

20. ㉠ 교역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15절)

- ㉠ (1) 교역자는 항상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임무가 있다.
- (2)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행 5:20; 딤후 4:2)이며 이 사명은 교역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졌 것이다(행 1:8).
- (3) 또 교역자들은 잘못을 행한 신자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마 28:20; 딤후 4:11; 딤후 2:25).
- (4) 왜냐하면 그들을 깨우쳐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 (5) 또한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활동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히 13:17).
- (6) 이같이 교역자와 신자들이 다 함께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과 실천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엡 1:23; 골 1:24)를 바르게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 장 불신 사회에서의 신자의 태도

단락구분 1 정부(政府)에 대한 태도 / 2-7 구원 이전과 이후 / 8-11 이단에 대한 주의(注意) / 12-15 개 인적인 부탁과 인사

1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2 아무도 꾀방하지 말며 다루지 말며 관용하며 법사에 은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무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제한 후에 멀리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 내가 아테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 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파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13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 ㉠ 본장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가?

- ㉠ (1) 본장은 2장의 내용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신자들이 국가와 불신자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와 디도가 이단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자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2)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하였지만 육신의 생활이 지상에서 이루어 지므로 세상의 올바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 (3) 즉 자기가 속한 국가에 선한 일로써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 (4)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 자신들이 정욕과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불신자들에게 은유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써야 한다.
- (5) 또 이단과의 쓸데없는 변론보다는 한두 번 그들을 훈제한 후에 멀리하고 차라리 선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 (6) 이같이 신자들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한 것을 세상에 나가 실제로 행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마 5:13-16)을 수행해야 한다.

2. ㉡ 신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한가? (1절)

- ㉡ (1) 신자들은 국가에 충성하여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일 등에 순종하여야 한다.

- (2)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롬 13:1-7).
- (3) 따라서 신자들이 세금을 받을 만한 자에게 세금을 내고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며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 (4) 그러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한 일을 하라고 명했을 때 신자들은 형벌을 받을지라도 거부해야 한다.
- (5) 왜냐하면 신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행 4:19; 벰전 2:13).
- (6) 그러므로 신자들은 국가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세우신 기관으로 인정하며 사회에 유익하고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정치를 펼친다면 단호한 자세로 그것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

3. ㉠ 통치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세상의 나라와 그 위정자들은 일단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 (2) 따라서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는 일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 (3) 그리하여 그들은 국민들을 바르게 재판하여(참조, 신 27:19; 대하 19:6) 나라 안에 악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또 개인이나 특권층의 사욕(私慾)을 위해 불의한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사 10:1; 28:14, 15).
- (5)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느 5:7; 사 3:14; 젤 22:27; 45:9)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잠 29:4).
- (6) 이같이 통치자들은 악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공의로 다스려(삼하 23:3; 잠 16:12; 29:4) 온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4. ㉠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절)

- ㉠ (1)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싸우지 말며 용서하여 매사에 온유한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
- (2) 그리스도께서도 평생을 온유하신 모습(사 53:7; 마 11:29; 26:52)으로 사셨으며 신앙의 선배인 모세(민 12:3), 다윗(삼하 16:11), 스테반(행 7:50), 바울(딤후 4:16) 등도 한결같이 온유한 모습이었다.
- (3) 즉 온유란 하나님께 대하여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하며 오래 참는다는 의미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인자하고 인내하는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갈 5:22, 23; 골 3:13).

5. ㉠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라(3절).

- ㉠ (1)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다.
- (2) 즉 어리석어 하나님이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양심에 느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며(삼상 15:22) 사단에게 속아서(딤후 3:13) 정욕과 향락의 종 노릇하여(롬 6:17) 악독과 투기로(막 7:21, 22) 남을 미워하며 살았었다(갈 5:15).
- (3) 또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다(참조, 마 13:13; 요 8:43; 롬 3:11; 딤후 3:7).
- (4) 이같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부터 구원받아 깨끗하고 의롭게(롬 5:1; 고전 6:11) 된 성도들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의롭고(고전 15:34) 경건하게(벰후 3:11) 살아야 한다.

(5) 나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그들과 대적하는 일 없이 그들도 구원의 은총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

6. **㉠** 어리석은 자란 어떠한 사람을 일컫는가? (3절)

- ㉠** (1) 성경이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란 미련한 자로서 본질적으로 성령의 일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고전 2:14;엡 4:18)를 가리킨다.
- (2) 이들은 하나님ی 없다 하고(시 53:1) 남을 헐뜯으며(잠 10:18) 위선으로 가득하고(눅 11:39, 40) 다름을 좋아할(잠 18:6;20:3)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출 줄도 모른다(잠 12:23;18:2;전 10:3).
- (3) 이 같은 행동은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삐뚤어진 상태에 있기에 악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미련한 행동들을 멀리하고 주를 경외하는 지혜(욥 28:28)를 가져 성결하고 평화스러우며 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는 진실된 삶을(약 3:17) 살아야 한다.

7. **㉠**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 설명하라(4-7절).

- ㉠** (1) 한 죄인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다.
- (2) 이러한 순서들은 단지 논리적인 구분이므로 어떤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 (3) 선택 :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백성을 미리 택하셨다(롬 9:11;살후 2:13).
- (4) 부르심(召命) :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별없이 전파된다(요 6:44;딤후 1:8, 9).
- (5) 거듭남(重生) :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성품, 능력 등이 주어진다(요 1:12, 13;고후 5:17).
- (6) 회개 : 죄로부터 전인격(全人格)이 돌아선다(겔 36:31;행 2:37, 38).
- (7) 신앙 : 죄에서 돌아선 전인격이 그리스도께로 향한다(행 3:19).
- (8) 칭의(稱義) :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는 즉시로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겨진다(롬 8:30;갈 2:26).
- (9) 양자(養子) :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질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자신도 그것을 깨닫는다(요 1:12;갈 4:6).
- (10) 성화(聖化) : 신자가 죽을 때까지 거룩을 위해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롬 6:4, 6;빌 2:12, 13).
- (11) 영화(榮化) :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히 12:23).
- (12)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화를 이루기까지 세상과 죄에 대해서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한다(고전 15:57;벧후 1:10).

8. **㉠**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신 때에 대하여 설명하라(4절).

- ㉠** (1)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사실을 가리킨다.
- (2) 그 당시(A. D. 1세기경)에 로마의 군사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로마인의 경우 점령 지역의 통행은 비교적 자유로와 복음의 전파가 쉬웠다.
- (3) 또 이 같은 배경으로 로마의 공용어인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 복음 전달이 빨랐다.
- (4) 이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가 찰기에 이루어진 사실(史實)들이다.
- (5) 그러나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는 압제와 핍박의 시기이기도 했다.
- (6)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황과 시기를 알지 못하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한다(딤후 4:2-5).

9. **㉠** 의로운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5절)

- Ⓐ (1) 율법에 순종하려면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지만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롬 3:20; 갈 2:16; 엡 2:4, 8, 9).
- (2) 만일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며(갈 2:21)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 (3) 또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의로운 행위만을 할 수도 없다(롬 3:23).
- (4)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롬 11:6; 엡 1:7).
- (5)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므로(고후 13:5; 골 1:27, 29)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은유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

10. Ⓢ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5절)

- Ⓐ (1)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重生〕 하여 새로운 본성(고후 5:17)과 새로운 생명(요일 2:29)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 (2) 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원히 같이 계셔서(요 14:16, 17)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마 10:17-20)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롬 15:13).
- (3)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대로 각자에게 알맞은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를 주신다(고전 12:4-12; 14:1-40).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께서 마음에 가득히 거하시도록 열심히 구하고(참조, 행 2:1-4; 4:23-31)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사랑, 자비, 평화, 은유 등과 같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증거들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갈 5:22, 23).

11. Ⓢ 구원에 관한 삼위 일체의 사역(事役)을 설명하라(6절).

- Ⓐ (1)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으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죄와 싸울 힘을 공급하시어 구원을 이루신다(참조, Ⓢ 7, 10).
- (2)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고전 8:4) 하나님의 신격(神格)에는 삼위(三位)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마 28:19).
- (3)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本體)는 하나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고후 13:13).
- (4) 성경에서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가르친다(왕상 8:60; 사 44:6; 고전 8:5, 6).
- (5)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전능(마 28:18), 전지(요 1:48), 무소 부재(無所不在, 마 18:20), 생명(요 1:4), 불변하심(히 13:8) 등의 속성들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요 1:3)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눅 7:48) 성령을 보내신 일(요 15:26) 등의 하나님과 같은 활동들을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사 9:6, 7; 마 28:20; 요 1:18; 골 1:17; 히 1:8; 계 19:16) 이시다.
- (6) 그리고 성령께서도 전지(全知)하시며(고전 2:10, 11) 안 계신 곳이 없으며(시 139:1) 못하시는 것이 없는(창 1:2) 등 모든 속성이 하나님과 같고(사 40:13; 눅 11:13; 롬 8:2; 요일 5:6)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창 1:2), 그리스도의 잉태(눅 1:35), 중생(요 3:5, 6), 위로(요 14:16), 중보(롬 8:26, 27) 등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만 속한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는(마 12:31)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 (7) 이러한 삼위가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세상 창조 때부터(창 1:26) 그리스도의 사역 때와(마 3:16, 17) 세상 끝날(마 28:19)까지 일체(一體)가 되어서 일하신다.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같은 삼위 일체의 교리(教理)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만은 한 위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다신론(多神論)을 주장하는 물론교 등의 이단에 미

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 '후사'(後嗣)란 무엇인가? (7절)

- ㉠** (1) '후사'(히, 아라쉬)란 원뜻이 '상속을 받는 자'로서 부(富)를 소유한 자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후사가 아직 어릴 때에는 종보다 나올 것이 없으며 비록 그가 전 재산의 실제적인 소유자일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갈 4:1, 2).
- (3) 노아는 믿음으로 의(義)의 후사가 되었고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후사가 되었다(히 11:7-9).
- (4) 이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이 되는 것을 그치고 아들과 상속자가 되었다(갈 4:4-7).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후사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롬 8:17) 그날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롬 8:35, 36).

13. **㉠**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말씀대로 선행에 힘써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실을 말한다.
- (2)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육신적인 선행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딤후 4:8).
- (3)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란 항상 기도하는 생활(참조, 시 5:3; 눅 2:37; 행 10:2),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고전 2:16; 빌 2:5), 겸손한 마음과 자세(시 149:4),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신앙(고전 10:31) 등을 가리킨다.
- (4) 이 같은 육신적인 선한 일과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성도 자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이므로 성도들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고전 10:32, 33) 사람이 되어야 한다.

14. **㉠** 어리석은 변론이란 무엇인가? (9절)

- ㉠** (1) 본질에 언급된 어리석은 변론이란 쉽게 대답할 수도 없고 또 설사 대답할 수 있다고 해도 성도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논쟁들을 가리킨다.
- (2) 초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본질, 천사들, 여호와라는 이름의 권능 등에 관한 의미 없는 논쟁이 있었다(참조, 딤후 1:4; 6:4; 딤후 2:23).
- (3)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느 쪽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는가?', '바늘의 뾰족한 부분에는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다.
- (4) 이 같은 의미 없는 논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성도들은 복음을 굳게 잡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참조, 딤후 2:14).

15. **㉠** 족보 이야기란 무엇인가? (9절)

- ㉠** (1)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제사장의 후예나 아브라함의 후예로 높이기 위하여 자기들의 족보를 성경의 인물과 연결시켜 만든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딤후 1:4).
- (2)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아브라함과 육체적으로 연관을 지어 놓음으로써 그들이 아브라함과 결속되어 그 축복의 후사가 되는 줄로 알았다(참조, 갈 3:29).
- (3) 이 같은 족보를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겼으나 사도 바울은 이런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행위들을 어리석고 허탄한 것으로 규정했다(참조, 딤후 1:4).
- (4) 이와 같이 오늘날도 신앙의 연수, 직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 등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나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16. **㉠** 율법에 대한 다름은 무엇인가? (9절)

- ㉠** (1) 유대교의 율법 학자들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행해서는 안 될 일, 깨끗한 사물과 부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불결한 음식 등에 대하여 의미 없는 토론에 열중했었다.

- (2) 더구나 이런 율법적인 논쟁에 열중하는 것이 종교 생활인 줄로 착각할 위험도 있었다.
- (3) 그러나 이런 의미 없는 율법적 다툼에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과 정열을 가지고 불신 사회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더 낫다.
- (4) 즉 성도의 생활 가운데 비록 사소하지만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제쳐두고 깊은 신학적인 문제만을 토론하고 있다면 이는 일종의 책임 회피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식적인 규칙에 얽매이거나 피상적(皮相的)인 토론에 열중하지 말고 오직 선한 일을 행하여(마 5:16; 딤펢전 6:18)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약 2:18).

17. **㉠** 위와 같은(㉠14-16) 분쟁과 다툼에 대하여 교역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9절)

- ㉠** (1) 교역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토론을 피해야 한다.
- (2) 왜냐하면 이 같은 논쟁은 무익하고 헛되므로 그런 토론에 교역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자들을(요 21:17) 말씀으로 가르치고(마 28:20; 딤펢전 4:11) 바르게 권면하는 일에만 충실해야 한다.

18. **㉠** 이단에 속한 사람이란 어떠한 자를 말하는가? (10절)

- ㉠** (1) 본절에 나타난 의미로는 이들은 어리석은 율법에 관한 논쟁과 족보 이야기 등 허탄한 주장을 하는 무리를 가리킨다.
- (2) 또 원래 이단(헬, 하이레시스)이란 말은 ‘견해’, ‘학파’, ‘종파’ 등을 의미하여 분리하는 성격을 가진다.
 - (3) 따라서 본절의 이단자는 자신의 의견을 교회의 교훈, 전승에 대립시켜 절대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리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뜻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공박하지 말고 함하여 선을 이룰(롬 8:28) 수 있도록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참조, 롬 16:25; 고후 9:13; 빌 1:27).

19. **㉠** 교역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0절)

- ㉠** (1) 사도 바울은 이들을 한두 번 훈계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으라고 하였다(참조, 요이 1:10).
- (2) 잠시 동안 알지 못하여 틀린 주장을 하였더라도 후에 권면이나 책망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자는 이단자가 아니다.
 - (3)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신자들을 한두 번 말씀으로 권고하고 충고하여 바른길로 인도하도록 애써야 한다.
 - (4) 그래서 충고를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주장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참조, 딤펢후 2:23; 벧후 2 장).
 - (5) 이같이 교역자들은 잘못된 자들을 권면할 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진지하게 충고해야 하며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복음과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20. **㉠** 영적으로 부패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11절)

- ㉠** (1) 그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다.
- (2) 본절에 표현된 ‘부패하여져’(헬, 엘세스트랴타이)란 말은 ‘뒤집다’, ‘비틀리다’, ‘그르치다’의 뜻이다.
 - (3) 즉 그들은 모두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바른 교훈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다(참조, 히 10:26-31; 벧후 2:20-22).
 -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부패한 자들이었다.

(5) 이같이 오늘날도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죄를 짓거나 심지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켜 죄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창16:13; 렘 23:24; 롬 8:27) 앞에서 솔직해야 하며 또한 같은 죄를 거듭하여 짓지 말아야 한다(참조, 시 51:3).

21. **㉠ 교역자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협조에 대하여 설명하라 (12절).**

- ㉠ (1)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교역자들은 자주 만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관하여 서로 권면하고 배워야 한다.
- (2) 두기고는 본래 아시아 사람으로 (행 20:4) 에베소와 골로새 등지에 바울의 편지를 전한(엡 6:21; 골 4:7) 일이 있는 성실한 동역자이다.
- (3) 이제 바울은 디도를 불러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그레데 교회의 사정을 묻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의 심부름을 보내려 한다.
- (4) 이같이 교역자들은 만나서 건설적이고 교육적인 권면과 서로 가르침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남을 헐뜯거나 분쟁하는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참조, 고후 11:28; 12:20; 살전 3:10).

22. **㉠ 교역자와 교인 사이에 나누어야 하는 사랑에 관하여 설명하라 (13, 14절).**

- ㉠ (1)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궁핍함이 없도록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며 교인들은 이런 교역자들은 여러 면으로 도와 선한 일에 충실해야 한다.
- (2) 바울은 디도를 니고볼리로 부르면서 율법 학자인 세나(Zena)와 바울의 동역자이자 담대한 전도자인 아볼로(참조, 행 18:24-28; 고전 1:12; 3:4-6)를 그레데 교회로 파견하여 교인들에게 영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 (3) 그리고 그레데 교인들은 이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의복 등을 도움으로써 선행과 봉사를 배우게 되었다(참조, 행 15:3; 롬 15:24; 고전 16:6; 고후 1:16; 빌 2:25).
- (4) 이같이 교역자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교인들은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고후 1:11) 봉사하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서로 발을 씻어 주듯이 섬기는 자세(요 13:14)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엡 6:7; 벧전 4:11).

23. **㉠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라 (15절).**

- ㉠ (1)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 어려울 때에 서로 돕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
- (2)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릴 정도로 뜨거운 형제 사랑이 있었으며(롬 16:4; 고후 12:15; 빌 1:8; 4:1)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가르쳤다(고전 16:14; 살전 3:12).
- (3) 그리고 사실상 초대 교회 시대(A. D. 1세기경)에는 서로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거나(행 2:44-46) 가난한 교우를 위한 헌금(고전 16:1-12) 등 실제적인 형제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
- (4) 이 같은 형제 사랑은 각박해진 현대 교회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며 물질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 주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10절).